

실속 재테크

저금리 시대 투자법

# 절세·장기투자 상품에 틈새수익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저축성보험 등 비과세·소득공제

ELD·ELS·채권형펀드,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 높아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이 사라지는 등 한국 사회도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절세 또는 투자형 상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깨지는 금리 공식저금리·저성장 시대=작년 10월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75%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할 것이고 시장 금리 역시 더 떨어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은행 금리보다 상호금융·저축은행 금리가 더 높다는 '금리 공식'이 깨지고 있다. 받은 자금을 운용할 마땅한 곳을 찾기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이 자금 유치 영업을 중단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는 연 4%대 초반,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은 연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 금리의 예금을 판매했지만 지금은 연 3% 안팎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자 공식'도 깨지고 있다. 적금금리가 예금금리를 추월하고, 대출이자도 예금이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는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복돈을 맡겨 이자로 생활하던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 방식도 불안해지고 있다.

여기다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선이 20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과세 기준까지 강화 추세여서 이자 생활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절세·투자상품에 눈 돌릴 때=세후 수익률, 원금보장 등을 고려한 영리한 투자가 필요하다. 잘만 살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틈새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세후 수익률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지만 만 60세 이상 가입자는 비과세(생계형저축)나 세담우대(9.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3000만원 한도)

생계형저축에 가입하고도 여윌 돈이 있는 투자자나 가입자 때때문에 생계형저축에 가입하지 못한 투자자는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눈을 돌려 맡겨 이자로 생활하던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 방식도 불안해지고 있다.

있지만 장기투자자들에게는 과거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기 마련인데 이중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절히 운용한다면 보다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펀드는 주식형 상품보다 덜 위험하면서도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KJB광주은행이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코스피(KOSPI)200지수 연계 상품인 '더블한스정기예금'도 눈여겨 볼 만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세금을 줄이는 게 재테크의 새로운 화두가 됐다"며 "장기주택마련상품, 저축성보험 등 비과세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행복기금 신청 폭주...재원부족 우려

일주일새 6만명...목표치 32만명 두배 이룰듯

빛더미에 올라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복기금 가입자가 시작된 뒤 벌써 신청자가 6만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애초 예상 수혜자 32만명의 20% 가까운 인원이 일주일새 몰린 셈이다.

신청기간이 총 6개월이라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수혜 대상자 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행복기금 측은 6개월 이

상, 1억원 이하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다.

가점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려는 채무자들이 초기에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어 아직은 수혜자 예상치 조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추세라면 수혜자가 애초 목표 32만여명을 초과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신청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연대보

증자 155만명 중 신청 가능성이 큰 8만여명도 고려 대상이다.

아직 접수 초기라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수혜자 수는 50만여명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행복기금은 애초 채무조정 수혜자 예상치를 32만으로 잡고 5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전환대출 바뀌드림론에 사용되는 보증재원 7000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비용으로는 8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수혜자가 예상치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연필뉴스



보해 학생봉사단 담양서 환경정화 (보해(대표 임효섭)는 27일 대학생 봉사단 '젊은일새 사랑나눔' 20여명, 보해 장성공장 직원, 광주지점 직원 등 50여명이 담양군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담양대나무축제 관광객 맞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보해양주 제공>

## 광주은행 임직원 '나눔실천 다짐대회'

### 은행장과의 대화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6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펼쳐진 4월 월례조회에서 임원 및 부사장, 지점장, 본부부서 직원 등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다짐대회를 가졌다.

## 4월 지역 소비자 심리 '호전'

4월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8일 발표한 '4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나타나 전월보다 1p 상승했다. 반면 전국은 102로 전월보다 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의 현재생활형편CSI는 전월보다 3p 오른 반면 생활형편전망CSI는 94로 전월대비 2p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관공서의 공사발주 및

농·어업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전남 지역 현재생활형편CSI가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8로 전월보다 1p, 소비지출전망CSI는 109로 전월대비 3p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2로 전월에 비해 4p 상승한 한 반면 향후경기전망CSI는 84로 전월대비 4p 떨어졌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는 수준으로서 여전히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수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는 지난 27일 유스퀘어 2층 동산아트홀에서 '제18기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 원·엔 환율 10% 하락뎀 수출 1.9% ↓

일본의 양적 완화로 원·엔 환율이 10% 떨어지면 2분기 한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과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엔·달러 환율이 100엔에 가까워지면서 엔화약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 대(對) 일본 수출실적률 보

면 철감(-25.0%), 기계(-23.9%), 전기전자(-19.2%) 등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엔·달러환율에 대한 수출가격 탄력성(-0.312)이 대기업(-0.223)보다 높아 환율변동에 민감하다.

중소기업이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100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천343원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1분기 대(對) 일본 수출실적률 보

## 주간 증시 포커스

## 부담 요인 완화 국면...中 내수주·미디어 유망

이번 주 증시는 KOSPI 1960pt 돌파를 타진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0선 상향 돌파의 주동력은,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고용 및 제조업 지표와 중국의 제조업 PMI의 선진에서 확보할 것으로 판단한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실시된다면, 이는 새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1·4분기 실적발표 시즌에 돌입한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적 하향 조정세도 일단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나뭇과대종목들의 반등시도 등을 볼 때 실적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파를 타진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60선 상향 돌파의 주동력은, 주 후반에 발표될 미국 고용 및 제조업 지표와 중국의 제조업 PMI의 선진에서 확보할 것으로 판단한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실시된다면, 이는 새로운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1·4분기 실적발표 시즌에 돌입한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들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실적 하향 조정세도 일단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나뭇과대종목들의 반등시도 등을 볼 때 실적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림돌이었던 뱅가드 펀드의 매물도 60%이상 진행됨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자금도 빠른 속도로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의 확장으로 실적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 패블릿을 중심으로 한 IT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관련 내수주를 바탕으로 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

# 「제5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정남진(正南津) 장흥에서 개최됩니다.

## 2013. 5. 7(화) ~ 5. 10(금) / 장흥공설운동장 등 각 경기장

- 성화 행사 : 5. 7(화) 09:00~14:00
- 군민 한마음 걷기 : 5. 7(화) 13:00 ~14:30
- 개막식 및 축하공연 : 5. 7(화) 15:00 ~ 18:15  
- 울랄라세션, 다비치, 남진, 마야
- 경기종목 : 22개 종목(정식 20, 시범 2)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 장흥군·장흥군체육회·가맹경기단체  
후원 |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제암산철쭉제  
5.5(일)

키조개축제  
5.3(금)~5.8(수)

물축제  
7.26(금)~8.1(목)